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 PL상담센터」현판식

중전기 제조물책임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중재역할 기대

앞으로 중전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문제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PL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 알선 및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전기 PL상담센터」가 지난 10월 15일 김준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홍순갑 일진전기 사장, 김봉균 대한트랜스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제조물책임 분쟁해결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하에 설치되는 이 센터는 중전기제품에 발생하는 제조물책임 분쟁 및 클레임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로서 소비자문제 전문가, 기술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상담, 알선, 조정 및 교육 등을 통해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전기 PL상담센터는 크게 “사무국”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상담, 알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사무

국”에서는 PL관련 각종 교육 및 일반 사무의 처리와 품목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카운셀러(분과위원회)가 제품안전 정보 및 제조물결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화해의 알선을 담당한다.

변호사,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담, 알선에 대한 조언 및 PL분쟁의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 센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의 결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감독·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흥회에서는 그 동안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수요처, 설치 및 보수(A/S 포함)업체, 소비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진흥회 내에 「중전기 PL상담센터」를 설립, 타부서에서 관장하던 PL관련 제반업무를 이관하여 PL전문가 양성교육사업, 중전기 PL공제보험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여 왔다.

LG산전(주)

초소형 인버터 신제품 출시

LG산전은 최근 18개월간 약 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 수출전략형 초소형 인버터(모델명: 스타버트

-iC5시리즈, 용량 0.4~2.2kW)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 대비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이번 신제품은 V/F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센서리스 백터제어기능 구현으로 저속으로서의 토크 특성 저하 및 부하변동에 따른 모터 속도 변동 등을 개선하였으며, 모터의 최적제어가 가능하도록 Auto Tuning 기능과 PID 기능을 내장하였다.

또한, EMC 필터를 내장하여 노이즈를 최소화하였으며, 운전중에도 지락 전류를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Ground Fault 트립기능을 추가하는 등 강력한 보호기능으로 급가감속, 부하변동, 순시정전 등의 급격한 상황 변화에서도 최적의 강력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방향 키를 적용하여 기능코드간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LG산전은 이번 초소형 인버터 신제품이 팬, 펌프 등 기존 단순 부하시장뿐만 아니라 소형 Conveyor, 런닝머신(Running M/C), 엘리베이터 도어 등 고부가가치의 전용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이 신제품으로만 내년 약 70억원의 매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행(李京行) 부사장이 지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전기안전축전대

회'에서 석탄산업훈장을 받았다.

전기안전축진대회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국민의 전기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전기안전관리를 통한 전기재해예방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는 대회다.

전력계통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업용 기기를 개발·생산하는 LG산전은 안전제품개발체계 구축과 대전력 시험설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전기재해 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두산중공업(주)

국산 原電설비 미국에 수출

- 세쿼야 원전 증기발생기 4기 제작 마치고 출하
- 원전 도입 25년만에 본고장 미국 진출, 쾌거

수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원전 핵심설비가 미국으로 첫 수출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월 18일 5천만달러 규모의 1200MW급 미국 세쿼야(Sequoyah) 원자력발전소용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4기 제작을 마치고, 발주처인 미국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및 웨스팅하우스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 사내 부두에서 출하 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1977년 고리원전이 준공되

면서 우리 나라에 원자력발전 시대가 열린지 25년만에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설비가 원전기술의 본고장인 미국 대륙을 밟게 됐다.

미국 테네시주 소디 대이지(Soddy Daisy)에 위치한 세쿼야 원전(경수로형)은 가동을 시작한 지 18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로 설비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두산중공업이 지난 '99년 9월, 프랑스 프라마툼, 캐나다 B&W사 등 세계적 기업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이번 증기발생기는 1기당 직경 5m, 높이 22m, 총 중량 340톤에 달하며, 내부에 길이 20m짜리 U자형 튜브 5천여 개가 들어가 있어 원자로에서 가열된 경수를 이용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발전기에 공급해주는 핵증기 공급계통의 핵심설비이다.

특히 고온고압(압력: 175kg/cm², 온도: 350°C)의 증기를 다루기 때문에 원자로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직결됨으로써 고도의 설계 및 제작능력이 요구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증기발생기 제작 과정에서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ATSG(Advanced Tube Support Grid)라는 튜브 지지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향후 증기발생기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0년 중수로

타입의 중국 진산원전 주기기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경수로 타입 국산 원전 주기기의 첫 해외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전설비 기술수준을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또한 향후 미국지역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15억달러 상당의 원전 교체 공사용 주기기를 추가 수주하는데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두산중공업 裴明星 전무(원자력 BG장)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설계, 제작기술, 품질 및 사업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받아 지난 8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6800만달러 상당의 와츠 바(Watts Bar) 원전 1호기 증기발생기 4기를 추가 수주했으며, 향후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세쿼야 2호기 및 와츠 바 2호기 원전 후속 공사에도 참여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TVA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밥 라우시氏(Mr. Bob Rausch)는 "까다로운 설계사양에도 불구하고 수압테스트를 단 한번만에 성공하는 등 두산중공업의 원전설비 제작기술과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후속기 제작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91년 경수로형 원자로 국산화, '95년 중수로형 원자로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원자로를 동시에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업체이며, 현

재 북한 경수로 설비 등을 제작 중에 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 전시회" 협약서 조인식 성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은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 관련사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정보교류, 국내외 수요기반 확충, 수출산업화 유도 및 마케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22일 무역센터에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력전자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등 10개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고, [케이웨어스(주) 대표이사 홍성권], [(주)서울메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신호범·박병호], 나노커뮤니케이션(대표 박성규)이 주관하는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 전시회(ELECTRIC/POWER KOREA 2003)"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서에서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내 전력산업계 및 전력기술의 획기적인 발

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은 전기계의 발전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제5차 전기안전축진대회"에서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안인순 회장은 일신방직(주)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재임중 전기재해 무사고 실천 및 전기안전관리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기술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재임시절부터 現 협회장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원사와 더불어 양로원, 소도시지역 및 수해지역 등 각종 취약전기설비의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무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전기안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학계 및 전력기술인 교육을 통한 전력기술인 후계자양성, 전기안전관리·시공·설계 및 감리체도의 조기정착 및 건설분야의 통합건설정책 방안에 대하여 독자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처 무재해 10배 달성 기념행사 실시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처(처장 : 정덕한)는 지난 10월 10일

노동부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 인천지도원장 및 중부본사 발전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목표 10배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인천북부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목표 10배 달성을 이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인천화력발전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무재해 사업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되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으로 지속적인 무재해 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경영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처장 및 지부위원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안전수칙과 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인천화력 무재해 10배 목표달성 행사내용은 지방신문(기호일보, 경인매일, 중부일보)에서 기사화하여 인천화력발전처가 안전한 사업장임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0월 1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사·사업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본사 및 사업소의 12개 우수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이날 발표된 과제는 그 동안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본사 및 사업소의 111개 혁신추진반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창의적 경영활동을 통해 추진, 선정된 과제이다.

김영철 사장은 이날 발표회 강평을 통해 "우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영혁신은 모두 함께 하는 개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신뢰와 협력의 열린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그에 따른 혁신의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회 수상팀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한전에서 주관하는 발전회사 경영혁신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특전을 갖는다.

현대중공업(주)

세계 최초 육상건조 해양설비선 건조, "命名式" 가져

現代重工業이 제작한 자체 중량 4만 7천톤 적재중량 33만톤(DWT)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 원유 저장설비선(FSO: Floating Storage & Offloading)」의 명명식(命名式)이 지난 10월 19일 해양사업부 안벽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명명식장에는 現代重工業 崔

吉善 사장을 비롯하여 이 설비의 인도처인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의 오바세키(Mr. J. Gaius Obaseki) 사장과 발주처인 프랑스 토탈피나엘프(Total Fina Elf)사의 브레시(Mr. G. Buresi)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선박은 오바세키 사장의 부인(Mrs. Obaseki)에 의해 「아메남 FSO 유니티(Amenam FSO Unity)호」로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도크(Dry Dock)가 아닌 육상에서 건조한 후 해상으로 진수하는데 성공해 관심을 모았던 것으로, 당시 해양설비선 제작기술의 신기원으로 기록됐었다.

당시 이 선박의 건조방식은 △육상에서 260개의 대형 블록을 제작하여 △육상에서 완전 조립한 후 △스키딩(Skidding) 공법으로 바지선에 선적하여 △공해상으로 이동시키고 △바지선을 잠수시키면서 본선을 진수시키는 공법이었다.

이 공법은 고가의 조선건조도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세계 조선 및 해양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해양설비선은 지난 2000년 9월 토탈피나엘프사에서 수주한 것으로 길이 313미터, 폭 63미터, 높이 32미터, 무게 4만 7천여 톤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갑판의 넓이가 축구장 3개 크기이며, 130명이 동시에 승선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갖추고 있다.

이 설비는 오는 12월 초 나이지리아 동부 35킬로미터 지점인 아메남 해상 유전지역의 수심 61미터 구역으로 출항하여, 내년 2월말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중국 전력시험기술연구원과 전력선 통신기술협력 협정체결

저압 및 중고압 전력선 통신분야 인력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 합의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중국 사천성의 전력시험기술연구원(원장

Zhu guojun)과 저압 및 중고압 전력선 통신분야의 인력 및 정보교류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는 전력선통신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중국 전력시험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전력선 통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기관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험장비의 공동활용과 전기연구원과 (주)젤라인이 축적하고 있는 저압 및 중고압 전력선 통신기술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기연구원은 젤라인과 공동으로 저압 및 중고압 전력선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3월

1Mbps 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력선통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현장 시험에도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젤라인은 중국 사천의 전력 시험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천 현지에서 전력선 인터넷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젤라인은 사천성 수도인 성도시 석인(石人)단지의 20여가구에 XPAS-100 제품을 설치하여 1Mbps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전력선 인터넷 통신을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속도는 중국에서 인터넷 접속 매체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전화선 모뎀의 20배 이상, 그리고 중국 현지의 ADSL 보다 5배나 빠른 접속 속도이다. 현재, 사천성 지역은 과도한 설치비와 사용료 부담으로 고속 인터넷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연구원과 젤라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저가의 모뎀이 성공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이 제품이 앞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 4호기 870일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영광원자력 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870일간, 2000. 4. 3~2002. 10. 14)을 달성하고 10월 14일 00시에 39일간의 일정으로 제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였다.

영광원자력 4호기는 '96년 상업운전 이후 총 3회('98년 387일, 2001년 396일, 2002년 474일)의 한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870일간의 2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기록은 우리 나라 원전 운영 능력의 우수성과 한국형 표준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계획 예방 정비기간 동안 영광 4호기는 연료교체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각종 기기 정비 및 설비개선 수행과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받고, 11월 21일경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주)

Power-Gen Asia 2002 참가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Power-Gen Asia 2002에 참가하였다. 전시회에서는 KSNP(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KSNP+ (개선형 한국원자력발전소) 및 APR 1400(차세대 원자력발전소), 표준석탄화력발전소(500MW, 800MW), 유동층발전소(200MW), 복합화력 및 송변전사업과 환경분야의 KEPAR(한국형 배연탈황설비) 및 저온 탈질설비를 소개하였으며, Conference 주제발표에서는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 내

용과 초초임계압 증기 조건으로 설계 진행중인 당진화력발전소 7, 8호기 설계개선 내용 등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LG전선(주)

중 칭다오 공장 설립

국내 최대 전선업체인 LG전선이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LG전선 관계자는 "중국 현지시장 공략 확대를 위해 칭다오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들어갔다"며 "올해 말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선 중국 공장 명칭은 'LG전선 텐진에나멜유한공사'로 결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시장 공략도 확대해 추후 생산규모는 1만 2000t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생산품목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모터류용 구리선(에나멜드와이어)으로 결정됐으며 연산 8000t 규모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컴프레서, HVT, DY용 구리선을 집중 생산한다.

회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중국에 진출한 LG전자, KTC 등 기존 고객에 대한 적기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현지시장 공략도 확대해 추후 생산규모는 1만 2000t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